김 일 성

일군들은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자

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일 성

일군들은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자

당, 행정경제기관 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2월 28일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간부는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 간부들의 준비정도에 따라 당의 질적상태가 좌우되며 간부들의 역할에 의하여 당의 모든 활동이 보장됩니다. 국가, 경제, 문화기관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것도 다름아닌 간부들입니다. 결국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간부를 어떻게 키우고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행정에 언제나 간부들을 잘 키우고 그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부터 민족간부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왔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민족간부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았으나 대학을 나온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혁명성이 강하고 제국주의자들과의 싸움은 잘하였지만 그들에게는 국가를 건설하고 관리운영하였거나 경제와 문화를 건설해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가 민족간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

설할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방직후 나라의 사정이 어려웠지만 자체의 힘으로 민족간부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을 건설하는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우리는 김제원농민을 비롯한 농민들이 분여받은 땅에서 첫해농사를 지어 나라에 바친 애국미를 건설자금으로 하여 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을 건설하고 혁명가유자녀들과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우리는 또한 고급당학교와 인민경제대학을 새로 내왔으며 나라의 살림살이가 펴이는데 따라 각급 양성기관들과 많은 대학들을 내오고 간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적들과 판가리싸움을 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동무들가운데도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전선에서 싸우다가 당의 부름을 받고 대학에 가서 공부한 일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방직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갖 난관을 이겨내면서 민족간부들을 체계적으로 키웠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그처럼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민족간부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160여만명의 지식인대군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키워낸 160여만명의 지식인대군은 우리의 재부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재부입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한 재능있는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며 이것은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와보고 우리가 준비된 자체의 민족간부를 많이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몹시 부러워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조선에서는 준비된 민족간부를 많이 가지고있기때문에 두려울것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을때마다 긍지를 가지게 되며 그들에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족간부를 키우던 이야기도 해주고 우리 간부들에 대한 자랑도 하군 합니다. 나는 몇해전에 어느 한 나라 당대표단을 만났을때에도 우리는 능력있는 민족간부를 많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다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다 내가 품을 들여 키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어버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일군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 나라의 충신이 되고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고 늘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키워낸 일군들가운데 충신이 많습니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일군도 많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도 많으며 혁명의 중요한 초소에서 누가 보건말건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며 성실히 일하는 일군도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군들가운데는 자기를 간부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지 못하고있는 일군들도 더러 있습니다. 사업에서 열성을 내지 않고 자리지킴이나 하는 일군들이 있는가 하면 간부의 자리를 타고난 벼슬자리로 여기면서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 일군들도 있습니다. 당의 품속에서 간부로 자라났으면 응당 당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애써 일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열성을 내지 않고 자리지킴을 하거나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군들이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려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관료주의는 착취사회에서 관료배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쓰는 반인민적인 통치방법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관료주의가 허용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일군들은 관료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군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면 매우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관료주의의 후과가 얼마나 큰가 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이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최근년간에 쏘련과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집권당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은 일군들이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려 당이 인민대중의 지지를 잃은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인민대중과 리탈되고 인민대중의 버림을 받은 당은 무너지기마련이며 당이 무너지면 사회주의가 자기 존재를 유지할수 없습니다. 관료주의는 결국 로동계급의 당의 대중적지반을 허물고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는 나쁜 작용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관료주의의 커다란 위험성이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김정일**조직비서는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은 보약을 먹는것과 같지만 군중우에 군림하여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도와 관료주의를 극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일군들은 관료주의의 해독성을 옳게 인식하고 절대로 관료주의를 부리지 말아야 하며 오직 인민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야 합니다.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사명입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하는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인민의 충복이 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면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며 그렇게 되면 당과 인민대중의 련계도 더 두터워지게 될것입니다. 인민의 충복, 이것은 참으로 값높은 칭호입니다. 일군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인민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고 자신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충복이라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당에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구호입니다. 이 구호에는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려는 당의 의도와 깊은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사업과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여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며 그들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인민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그 어떤 명예나 평가를 바람이 없이 인민의 행복과 리상을 꽃피우는데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현지지도를 하다가도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일군들을 만나면 제일 기쁩니다. 내가 어느해인가 농업부문 일군협의회를 현지에서 지도한 일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 참가한 어느 한 협동농장일군은 남들처럼 뜨락또르를 더 달라든가, 비료를 더 달라고 제기하는것이 아니라 농장원들의 밥사발을 좀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기하는것이였습니다. 나는 그 일군의 말을 듣고 그가 농장원들의 밥사발걱정을 하는것을 보니 그곳 농장원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민들의 밥사발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밥사발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인민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 일군이 밥사발문제를 제기하는것을 보고 그가 농장원들의 생활을 위하여 애쓰는 일군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가 다하지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납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가장 인민적인 로선이며 정책입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집대성되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것을 념원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중앙인민위원회결정으로 우리 당창건 50돐이 되는 1995년까지 우리 인민의 이 세기적인 념원을 빛나게 실현할데 대한 과업을 내세웠습니다. 일군들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의 식의주문제에서 기본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농사를 잘지어 알곡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 식량이 넉넉하여야 인민들을 배불리 먹일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오래전에 쌀은 곧 사회주의라는 구호를 내놓았으며 오늘에 와서는 쌀은 곧 공산주의라는 구호를 내세우고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우리는 올해를 대농의 해로 정하고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농사가 만족스럽게 잘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해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다음해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올해농사를 총화해보면 비료를 제대로 대주지 못하여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더 높일수 있는것도 높이지 못하였습니다. 비료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농촌에 비료를 넉넉히 대주어야 합니다. 알곡은 비료를 주면 주는것만큼 나오기마련입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설비를 대형화, 현대화하는 공사를 끝낸것만큼 다음해부터 비료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을것입니다. 화학공업부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시비년도 비료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련합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다음해 3월말까지 뜨락또르수리정비사업을 완전히 끝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록색혁명을 다그쳐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종자를 많이 얻어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가 지난 가을에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에 나가 농업과학자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이 연구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도일군들은 농업과학자들의 연구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어 좋은 벼종자와 강냉이종자를 얻어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어 고기와 알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돼지공장, 닭공장, 오리공장을 비롯하여 고기와 알생산기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먹이문제가 걸려 그것이 제대로 은을 내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문제를 해결하여 돼지공장, 닭공장, 오리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촌세대들에서도 돼지, 닭, 오리, 게사니 같은 집짐승을 많이 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닭, 오리, 게사니 같은 집짐승은 번식이 빠르고 생산성이 높으며 먹이도 적게 들고 기르기도 쉽습니다. 농촌세대들에서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닭, 오리, 게사니 같은 집짐승을 얼마든지 많이 기를수 있습니다.

경공업부문 일군들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이미 마련되여있는 우리의 경공업토대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방직공장, 피복공장,

신발공장, 식료공장을 비롯하여 있어야 할 경공업공장들이 거의다 있습니다. 문제는 일군들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일군들이 높은 당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투쟁한다면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습니다. 입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화학섬유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비날론공장을 비롯한 화학섬유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계속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3년동안 매해 도시와 농촌에 살림집을 15만~20만세대씩 건설하려고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하는 바쁜 가운데서도 평양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풀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조직비서의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평양시에서는 이미 나의 생일 80돐을 계기로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일떠세웠습니다. 조직비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까지 평양시에 3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것을 또다시 발기하였습니다. 동무들이 조직비서의 의도를 받들어 3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을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투쟁기풍입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는 사람은 혁명을 할수 없으며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갈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이 전후에 재더미우에서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울수 있은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반대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였기때문입니다.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자력갱생하면 난관을 뚫고나갈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매우 복잡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고립질식시키려고 정치군사적압력과 함께 경제적봉쇄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길은 자력갱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 이것은 당과 혁명에 대한 일군들의 충실성의 척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과 혁명에 대한 일군들의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당의 로선

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일군이 바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일군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절대로 조건타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군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이악하게 관철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당의 구상과 전략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소 일군들이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습니다. 정춘실동무를 비롯한 그곳 상업관리소 일군들은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아주 이악합니다. 그들은 지난 기간 본신사업인 상업봉사활동을 잘하였을뿐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뽕밭과 원료기지를 조성하고 누에치기와 강냉이농사를 잘하였으며 해리서와 은흑색여우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군안의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내가 지난해에 자강도를 현지지도하면서 정춘실동무를 만나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만나서 지난

기간 일해온 과정을 이야기하였는데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정춘실동무를 17살의 단발머리처녀로서 상점판매원을 할 때 처음 만나보았는데 이제는 그가 2중로력영웅이 되였습니다. 2중로력영웅이 된다는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고 진정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는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정춘실동무는 내가 보증을 서서 입당시켰지만 그를 참다운 인민의 충복으로 키운것은 당중앙위원회 **김정일**조직비서입니다.

나는 정춘실동무와 같은 인민의 충복이 매개군에 한명씩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매개군에 이런 일군이 한명씩만 있으면 당의 정책을 관철하여 인민생활문제를 적지 않게 풀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정춘실동무처럼 인민의 충복이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당에서는 정춘실동무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는데 일을 잘하는 일군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벌리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의 방침대로 《정춘실운동》을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정책을 관철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정춘실동무가 보여준 헌신성과 희생성, 이신작칙, 자력갱생의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입니다.

일군들이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려면 혁명

적군중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혁명적군중관점은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 관점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난 혁명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힘의 소유자이며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야말로 혁명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혁명적군중관점이 서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군중을 깔보고 주관과 독단, 소총명을 부리며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합니다.

내가 회고록에 《이민위천》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민위천》은 나의 지론이고 철학입니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인민대중을 하늘과 같이 여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여왔습니다. 혁명하는 사람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것은 오랜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뚜렷이 실증되였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혁명적군중관점을 바로가지고

《이민위천》사상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늘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워야 하며 어렵고 힘든 과업이 제기되면 다른데서 요행수를 찾으려고 할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그 수행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일군들은 고상하고 원숙한 인민적품성을 지녀야 합니다.

인민적품성을 지니지 못한 일군은 아무리 노력해도 군중의 신망을 얻을수 없습니다. 그런 일군에게는 인민들이 속을 주지 않습니다. 일군들이 인민적인 품성을 지니고 군중을 대하면 그만큼 사업상 권위도 서고 대중의 믿음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들을 참다운 동지로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도일군들과 인민들사이의 관계는 서로 신뢰하고 이끌어주는 동지적관계입니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서로 맡고있는 초소는 다르지만 다같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혁명동지입니다.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을 겸손하고 례절있게 대하며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차별하지 말고 혁명동지로 따뜻이 대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합

니다. 일군들은 인민들과 간격을 두고 그 어떤 특전이나 특혜를 바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과 함께 있어야 하며 밥을 먹어도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인민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이렇게 생활하는것을 체질화하여야 합니다.

청렴하고 결백한 품성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인민적품성입니다. 일군들이 대중과 한데 어울려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자면 경제도덕생활에서 청렴하고 결백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절대로 직권을 람용하여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군들이 특별히 경계해야 할것은 직위욕과 물욕입니다. 물욕은 아편과 같습니다. 일군들이 물욕에 빠지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죠아사상과 썩어빠진 생활풍조에 오염되여 사리사욕을 추구하게 되며 나중에는 당과 혁명을 배반하는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일군들은 절대로 물욕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청렴하고 결백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이신작칙의 품성을 지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면서 이신작칙하는 일군이라야 군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습니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남보다 산발도 먼저 타고 등짐도 먼저 지면서 늘 군중의 앞장에 서야 합니다. 일군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면 따라나서지 않는 사람이 없을것이며 못해낼 일이 없을것입니다.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일군들의 사업성과는 그의 수준에 따라 좌우됩니다. 오늘의 발전하는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수준을 가지고 일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지난날에 비할바없이 규모가 크고 기술장비수준이 높습니다. 지난날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현대적인 대규모경제를 제대로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생산조직과 지휘를 바로해나갈수 없습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이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것도 그들의 수준이 높지 못한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습니다. 일군들은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막히는데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서는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매일

2시간이상 학습하며 토요학습과 강연회에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성실히 배워야 합니다.

학습에서는 무엇보다도 당정책학습을 잘하여야 합니다. 당정책은 일군들이 사업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입니다. 우리 당정책에는 모든 부문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면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신심을 가지고 해낼수 있으며 모든 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전개해나갈수 있습니다. 일군들은 당정책학습을 강화하여 수시로 제시되는 당의 정책을 잘 알아야 하며 특히 자기 부문의 당정책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관리지식과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학습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지식과 현대과학기술지식을 모르고서는 경제사업을 옳게 지도할수 없습니다. 일군들은 경제관리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하여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와 방법, 그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며 사회주의경제법칙과 경제범주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기 부문의 과학기술적문제는 물론,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와 최신과학기술성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일군들이 인민대학습당을 리용하면 많은것을 배울수 있을것입니다. 인민대학습당은 전민교육의 전당입니다. 인민대학습당에는 현대과학기술서적들이 많

습니다. 일군들이 인민대학습당에 가면 과학기술서적들을 마음대로 볼수 있고 과학기술강의도 받을수 있습니다.

각급 간부양성기관을 통하여 현직일군들을 끊임없이 재교육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에 일군들이 현실발전에 뒤떨어지지 않고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직일군들이 6개월동안 자기 사업에서 떨어져 각급 양성기관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내왔습니다. 일군들을 고급당학교나 인민경제대학의 6개월재직일군반에 계획적으로 보내여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6개월이면 결코 적은 시일이 아닙니다. 이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많은것을 배울수 있습니다. 6개월재직일군반에서 공부하는 일군들은 시간을 아껴가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하여 열심히 학습하여야 합니다.

한달강습도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일군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한달강습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당성을 단련하면서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일군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은 당성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훌륭한 학교입니다. 일군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당과 인민을 위하여 변함없이 충실히 일해나갈수 있습

니다.

일군들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자체수양을 쌓아야 합니다. 일군들은 언제나 평당원의 립장에서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이 당의 신임과 배려를 잊지 말고 당과 인민을 위하여 변함없이 충실히 일해나가겠다고 하는데 결의를 다지는것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일군들은 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를 순간도 잊지 말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참다운 혁명가,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